



# 제10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울산에서 열려

## '바다의날 10년, 해양강국 1000년' 주제로

### 흥아해운 이윤재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해양수산부는 5월31일 11시 울산 장생포에서 '바다의날 10년, 해양강국 1000년'이라는 주제로 바다의 날 1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갖고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흥아해운 이윤재 회장을 비롯한 공로자 21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장두찬 한국선주협 회장,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각계대표와 지역주민 등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사무총장 미트로 폴로스(그리스 출신)가 바다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가 '바다의 날 10주년'을 맞

는 뜻 깊은 해로 국가발전에 있어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해양강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바다헌장을 제정·선포하였다고 밝혔다.

바다헌장제정은 해양수산업과 단체, NGO, 언론계, 학계, 정·관계, 군·경 등 각 분야 대표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장관,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동서회합 행사를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축하메시지를 통해 "바다는 희망의 터전이며, 우리는 바다로 나아가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조선업이 부동의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해운업에서 벌어





들이 의회가 지난해 18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우리의 항만은 세계 다섯번째 규모로 성장했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하여 동북아 물류허브, 세계 5대 해양강국의 꿈을 반드시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 식전행사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 직원들의 헌혈증서(435매)를 백혈병어린이재단에 증정하였으며, 소아암어린이 돕기 후원약정서(매월 2,114명에게 916만원씩 지원)를 전달하였다.

이번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는 외항해운 발전에 공이 큰 흥아해운(주) 이운재 회장과 원양어업 발전에 공이 큰 (주)동남의 윤명길 대표이사와의 금탑산업훈장 포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바다주간(5.29~6.4)에는 전국 연안의 주요 도시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선박·항만공개, 치어방류, 푸른 바다 가꾸기 행사, 뮤지컬 장보고 공연, 고래박물관 개관식, 해양과학기술 학술대회, 한국선주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와 조정대회 등이 126개 행사가 개최되었다.

바다의 날은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신해양시대를 맞아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진취적인 기상 고취하고 해양강국을 위한 국가해양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여 5월 3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번 '바다의 날' 행사에

서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 금탑산업훈장 이운재 흥아해운 회장

이운재 흥아해운 회장(61)은 탁월한 경영감과 국제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국제해운협력에 공헌하고 한국해운업을 이끌어온 해운업계의 산증인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70년 해운업계에 뛰어들어 35년 간 동보상선(주) 회장, 흥아해운(주)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해운산업 발전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85년 이 회장이 흥아해운의 경영을 맡을 당시 회사 매출액은 383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매출액은 무려 5,292억원으로 급성장해 굴지의 전문경영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흥아해운은 20년 최장수 법정관리 기업이었다.

그러던 흥아해운은 1985년 이 회장을 '선장'으로 맞으면서 1997년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후 비경제선 처분, 판매관리비 절감, 관계거래처 신뢰 회복 노력 등 과감한 조치를 통해 차츰 재도약 기회를 마련했다.

결국 2004년 매출 5,292억원으로 법정관리 진입 시점에 비해 1400%에 달하는 성장을 이뤘으며 영업이익 223억원, 당기순이익 303억원, 부채비율 414% 등으로 11월말 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특히 사내 의무교육제 등을 도입해 분규 없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것도 그의 경영성과 중 하나.

흥아해운은 한~일 및 동남아 항로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적취하는 근해 수송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공헌해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항구를 거의 운항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정기 선사로 발돋움했다.

특히 1척의 선박으로 출발한 케미컬 서비스도 현재 19척 선단으로 성장시켜 한국 화학공업 육

성에 공헌했다. 또 이 회장은 2000년 한국에도 조합을 설립해 한국이 실질적 해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산파 역할을 했다.

이 같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설립으로 한국 선주들의 효율적인 권익보호가 가능하게 됐고, 그동안 보험료 명목으로 영국 등 우수 조합으로 빠져나가던 막대한 규모의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 ▶ 동탑산업훈장 정연직 도선사(인천지회)

한국도선사협회 인천지회 소속 정연직 도선사(68)는 44년의 해상생활 경력 중 단 1건의 해양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무사고 해양인'으로 유명하다.

10만톤급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인천항 갑문 내 최대 자동차운반선의 전담 도선사로서 고도의 도선기술 발휘로 수도권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차질 없는 자동차 수출에 일조한 공을 인정받아 동탑 훈장을 받게 됐다.

지난 12년 동안 도선사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경험·기술·창의를 바탕으로 항만정책 개발 자문에 적극 참여해 항만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국내 최초로 '도선사 등급제'를 창설해 항만정책 기반 조성하고 안전 도선에 공헌함으로써 해운항만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은 큰 성과다.

### ▶ 철탑산업훈장 김명환 선장(KSS해운)

김명환 선장은 (주)KSS해운 소속의 케미칼화물 운반선인 '그린케미스트' 호의 선장으로 승선중이며, 1973년부터 승선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항해술을 바탕으로 1978년 3월 (주)KSS해운에 1등 항해사로 입사 이후 고도의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케미칼 화물 운반선에 승선 근무하면서, 철저한 안전관리로 현재까지 장장 27년간 무사고 운항을

달성하고 있다.

2000년 11월 가압식 액화가스운반선인 '가스트윈스' 호의 신조선 인수 선장으로서 승선하여 케미칼운반선 뿐만 아니라 액화가스운반선의 운항관리능력에도 탁월한 면면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 특수화물운반선 운항기술분야에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해운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케미칼 운반선의 운항관리 기술을 후배 사관 및 부원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킨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후진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 ▶ 산업포장 서정관 기관장(STX팬오션)

서정관 STX팬오션 기관장(57)은 35년이 넘는 승선 경험과 기술력이 바탕이 된 '무재해 무사고 안전운항'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공헌했다.

서 기관장은 72년 범양상선 이등기관사로 입사한 이래 노후선에서 첨단 초대형 선까지 각종 선박을 두루 승선하며 실무경험과 기술을 쌓았다.

특히 주기관 보일러 자체 수리와 예방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에너지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했으며 선박 안전운항, 해양오염방지 등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해양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 92년부터 회사가 추진중인 무재해·무사고 캠페인인 'POS-4P 운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 선상의식 개혁에도 타의 모범이 됐다. 그 결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고 운항 기록을 이어가 대한민국 해운의 국제적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서 기관장은 승선 근무중 이론과 실무를 직접 시범해 보이며 선원들에게 자기 계발 동기를 부여하고 해원이 갖춰야 할 기술들을 전수하며 우수한 해기사와 인력 양성에 이바지했다.



2005년 '바다의 날' 포상대상자 명단

훈격	소속	직위	성명(나이)	비고(소관)
금탑산업훈장	흥아해운(주)	대표이사	이윤재(60)	대표수상자(해운)
금탑산업훈장	(주)동남	대표이사	윤명길(61)	대표수상자(국제)
은탑산업훈장	동일조선공업(주)	대표이사	김성태(57)	대표수상자(해운)
홍조근정훈장	부경대학교	교수	조영제(53)	(수산)
동탑산업훈장	한국도선사협회	도선사	정연직(68)	대표수상자(해운)
동탑산업훈장	(주)한국항만기술단	부사장	유혁근(59)	대표수상자(항만)
철탑산업훈장	(주)KSS해운	선장	김명환(58)	대표수상자(해운)
철탑산업훈장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권문상(52)	(해양)
석탑산업훈장		어촌문제연구가	한규설(77)	(어업)
석탑산업훈장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임영윤(50)	(수산)
근정포장	대검찰청 형사과	검찰수사사무관	현재우(53)	(어업)
산업포장	동원산업(주)	상무이사	이종구(47)	(국제)
산업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센터장	김정봉(50)	(수산)
산업포장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교육홍보부장	채규종(49)	(해운)
산업포장	울산항만물류협회	협회장	공영훈(52)	대표수상자(해운)
산업포장	STX PAN CEAN(주)	기관장	서정관(59)	(해운)
산업포장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전무	김진호(49)	(어업)
산업포장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용근(52)	(해양)
산업포장	삼성물산(주)	부장	송영재(46)	(항만)
산업포장	(주)건일엔지니어링	사장	오세범(53)	(항만)
산업포장	(주)세광종합기술단	전무이사	팽재신(48)	(항만)
대통령	(주)금창수산	대표이사	김원규(63)	(국제)
대통령	(주)부흥대표	이사	이상철(54)	(수산)
대통령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협회장	유충온(59)	(수산)
대통령	선박검사기술협회	사업개발팀장	김주남(52)	(안전)
대통령	(주)한진중공업	공사부장	유진호(49)	(안전)
대통령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태길(45)	대표수상자(해운)
대통령	한국해운조합	상무이사	배용몽(53)	(해운)
대통령	삼호해운(주)	대표이사	신용주(59)	(해운)
대통령	(주)팬스타라인닷컴	대표이사	김현겸(44)	(해운)
대통령	세방기업(주)	상무	황성규(49)	(해운)
대통령	(사)김생산자어민연합회	회장	박성진(54)	(어업)
대통령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성애(45)	(어업)
대통령	수협중앙회	감사실장	김영태(52)	(감사)
대통령	목포상공회의소	항만수산위원장	박귀배(49)	(해양)

2005년 '바다의 날' 포상대상자 명단

훈격	소속	직위	성명(나이)	비고(소관)
대통령	충청남도지방수산	서기관	고석준(58)	(해양)
대통령	한국해양소년단	대구연맹장	최명환(63)	(해양)
대통령	대림산업(주)	부장	리윤순(46)	(항만)
대통령	(주)대우건설	부장	백종길(48)	(항만)
대통령	수협중앙회(신용)		수협중앙회	대표수상자(수산)
대통령	병무청		병무청	(해운)

## 항만노무 개혁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 정부,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 구성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여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항운노조 개혁문제를 추진키로 최근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혁위원회 첫 회의가 6월말께 개최된다.

해양부는 현행 항운노조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선사 등 항만이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다 최근 잇달아 불거져 나온 노조 비리사건을 계기로 항만분야부터 노무공급방식을 상용화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노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범정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항운노조 개혁의 경우 전반적인 국가물류체계를 선진화하고 동북아물류중심 선점의 핵심이란 측면에서 범정부차원에서 강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개혁위원회에는 재정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며, 항운노조 개혁 관련 중요 정책사항 뿐만 아니라 특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

된다.

아울러 각 지방에서도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노동청, 경찰청(서), 해양청(서),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협의회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노조 개혁 문제를 다루고 그 동안 항운노조가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나타났던 불합리한 관행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개혁기구가 구성·운영되면 항만분야 개혁에 가속이 붙게 되고 항만 이외 분야에도 개혁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5월 6일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상용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완전고용, 현 수준의 임금 및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사·정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했다.